

최고경영진에 여성·젊은파... 주요 경영진 유입 '안정속 혁신'

LG그룹, 2023년도 임원인사

지투알 최고경영진에 박애리 승진
LG생활건강에 첫 女 CEO 이정애
디스플레이 전무에 박진남 발탁

LG그룹이 '안정속 혁신'을 선택했다. LG그룹이 주요 경영진을 대부분 유입시킨 것은 글로벌 복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에 주력하는데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도 최고 경영진에 여성을 기용하고 젊은 임원을 파격 승진하며 새로운 바람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숨기지 않았다. LG전자는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며 미래 준비를 더 단단히 했다. <관련기사 1면>

LG그룹은 23일에 이어 24일 이사회를 열고 주요 계열사의 2023년도 임원인사를 확정했다.

지투알(株) LG는 기본적으로 주요 경영진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한 경영전략부, 경영지원부 체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계열사 미래 준비 지원에 더욱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남준 재정팀장과 최호진 비서팀장을 전무로 승진하는 등 성과 주의를 바탕으로 한 승진과 함께 LG CNS에 있던 윤창병 통신서비스팀장(상무)을 보강했다.

◆ 혁신 임원 발탁 이어가

그러면서도 지투알에 여성 임원인 박



이정애
LG생활건강 신입 사장



류재철
LG전자 H&A 사업본부장 사장



박애리
지투알 CEO 부사장

애리 전무를 2019년 이후 3년만에 다시 한 번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CEO로 선임하면서 경영진 다양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박 CEO는 대우자동차 판매를 거쳐 LG애드에 입사, HS 애드 상무 등을 거쳤다.

LG생활건강은 그룹에서 첫 여성 사장이 맡는다. 지난 18년간 성장을 주도하며 CEO를 지켰던 차석용 부회장이 만 70세를 앞두고 결국 은퇴, 대신 이정애 부사장을 승진하고 CEO로 내정했다.

이 신입 사장은 LG생건 공개 채용 출신으로, 첫 여성 임원이기도 하다. 생활용품사업부장, 럭셔리화장품사업부장, 음료 사업부장 등 주요 사업 부문을 모두 거쳤으며, 특히 다양한 제품을 성공적으로 마케팅하며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LG생건이 지난해말부터 중국 봉쇄로 실적 악화에 빠진 상황, 이 사장은 위

기 속에서 실적을 회복하고 새로운 시장을 찾는 특명을 맡게 됐다. 전임자인 차 부회장을 넘어 세대 교체와 혁신을 어떻게 이뤄낼지도 숙제다.

LG디스플레이도 구매 프로세스를 선진화한 공로로 여성 임원인 박진남 상무를 전무로 승진시켰다. 전무 승진자 3명 중 1명이다.

그 밖에도 LG그룹은 2년 연속 전체 승진자 중 70% 이상을 신규 임원으로 채우며 꾸준히 혁신적인 인재들을 중용하고 있다.

연령대도 92%가 1970년 이후 출생자다. 특히 LG전자는 1983년인 우정훈 수석전문위원을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하며 데이터 플랫폼 구축, 스마트 가전 및 ThinQ 앱의 성능 향상 등에 기여한 공로로 발탁 승진시켰다.

LG는 기술 중심 인사 방침도 확인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 신규 임원 31명,

그룹 내 전체 연구개발 임원은 역대 최대인 196명이 됐다.

아울러 해외 고객들을 만나온 LG전자 장애인 상무를 발탁하는 등 CS분야 임원을 8명으로 2018년(3명) 대비 대폭 늘렸다.

◆ LG전자 '고객경험' 개편

LG전자는 CEO를 유입하는 등 인사 폭을 최소화하는 대신 '고객경험 혁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사업 본부 중심 책임 결정 체제를 강화하고 전자 차원 미래 준비를 주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우선 본사 직속 CX센터를 신설, 총체적·선형적 고객경험 연구 강화, 전략 및 로드맵 제시, 전자 관점의 고객경험 혁신과 상품/서비스/사업모델 기획 등을 맡겼다. 산하에는 CX전략담당으로 전자 관점의 고객경험 지향점 및 핵심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디자인경영센터 산하 LSR연구소(Life Soft Research Lab.)를 LSR고객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해 CX센터로 이관한다. 디자인경영센터장을 역임한 이철배 부사장에 CX센터장을 맡겼다.

지난해 7월 신설된 플랫폼사업센터는 본사 및 사업본부에 분산돼 있던 LG 씽큐(LG ThinQ)의 기획, 개발, 운영을 통합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9월 영입한 정기현 부사장이 센터장을 맡는다.

구매/SCM경영센터는 생산기술원 산하 생산기획담당 기능을 이관 받아

글로벌오퍼레이션센터로 역할 및 명칭을 변경했다. 글로벌오퍼레이션센터는 생산, 구매, SCM 등 오퍼레이션 전반에 걸쳐 역량 및 시너지 강화를 주도하고 DX(디지털전환) 기반의 근원적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기존 4개 사업본부는 그대로 유지하며 의사 결정 체제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H&A사업본부는 '리빙어플라이언스사업부'와 '키친어플라이언스사업부'를 각각 '리빙솔루션사업부'와 '키친솔루션사업부'로 변경해 고객이 경험하는 종합적 가치와 콘텐츠/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 지향점 등을 두루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HE사업본부는 HE연구소 산하에 '인도네시아개발담당'을, VS사업본부는 산하에 전장부품 통합 오퍼레이션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VS오퍼레이션그룹'을 신설해 시너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BS사업본부는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의 본격적인 성장 가속화를 위해 사업본부 직속 'EV충전사업담당'을 신설한다.

성과주의에 따른 승진 인사도 병행했다. 생활가전 세계 1위를 달성한 류재철 H&A 사업본부장을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전장사업 흑자를 달성한 은석현 VS사업본부장도 부사장이 됐다. 해외시장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이룬 김영락 인도네시아도 부사장으로 한국영업본부장을 맡게 됐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 물류마비 우려

전국 16개 본부서 2.5만명 참여
국토부, 운행차량 보호조치 실시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차량 등 투입

정부 "국가 경제에 위기 초래한다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며 물류마비가 현실화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각각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의왕 ICD에 서울·경기지역본부 조합원 1000여명을 비롯해 광주·전남지역본부 4000여명, 인천지역본부 1400여명, 울산지역본부 1000여명, 대구경북지역본부 400여명 등이 참여

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조합원 2만 5000명이 파업에 참여해 평택항, 부산항, 광양항을 포함한 주요 항만과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 등 물류 거점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 9600여명이 출정식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또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보호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차량 등 대체운송수단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본부는 전국 지부에 유조차(오일 탱크로리) 운행 전면 중단과 함께

모든 파업 차량에 기름을 채우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유류난 등이 우려되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 5000명으로 전체 화물차 기사의 6% 수준이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소속 유조차는 전국의 70%, 서울의 90%에 달한다.

정유업계는 당장 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 가시화에 주시하고 있다. 일선 주유소들은 통상 2주~1개월 치의 유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의 무기 총파업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충북지부 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한일 시멘트 출하장 입구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명령도 발동하겠다"며 "집단운송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담화문 발표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함께했다.

원희룡 장관은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송 방해와 협박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법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성운·원승일 기자 ysw@

"초거대 AI, 거짓말 엄청 잘하고 일관성도 부족"

>> 1면 '메타버스, 새 형태로'서 계속

김 답당은 "애플이 좋아, 삼성이 좋아'를 물으면 삼성에서 뭐라 할까봐 '애플'이라고 대답하는 등 초거대 AI는 거짓말을 엄청 잘 한다"며 "또 메모리가 없어 일관성이 부족한데, 등산을 좋아한다고 했다가 안 좋아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페이스북에서 논문 AI를 만들었는데 사실적인 것을 엄청나게 학습했지만 AI가 사실적인 거짓말을 하는 문제를 드러내 1주일 만에 폐쇄됐다"며 "또 가상인간인 여리지와 레드벨벳의 아이린이 너무 유사해 최근에는 초상권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밝

혔다.

이건복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 사업부 상무는 "잘못 학습된 AI 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데 동의하고, 사진 데이터와 통계적 데이터 만 가지고 당신은 몇 살, 성별은 뭐라고 정의하는 게 잘못 될 수도 있다"며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을 보더라도 AI가 사람을 이기는 경우를

보여주며 경쟁 모습을 당당히 보여준다. AI가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윤리의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진 네이버 글로벌 AI 비즈니스 리더는 AI의 페인포인트로 "아이템 프로젝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언제 종료될 지도 알 수 없다"며 "좋은 답러닝 모델이 필요한 데 양질의 데이터가 반드시 갖춰져야 정확도가 높아진다. 또 지도학습 방식으로 정답을

매겨야 하는데 이 작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져 이 같이 어려운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초거대 AI인 '하이퍼스케일 AI'로 '하이퍼클로바' 모델을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채윤정 기자 echo@